

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(토)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~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, 철도안전정책과장, 철도안전감독관,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,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,
 -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.
-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(방화로 추정),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(비상 인터폰),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,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,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(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)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·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하였습니다.
 - 승객은 전원 대피하였고,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(사망자 無),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, 차량 피해(객차 바닥 그을음 등)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.
-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,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, 관련 매뉴얼 정비, 안전요원 추가 배치,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보완·개선하겠습니다.

<국토교통부>	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혁 (044-201-4603)
<행정안전부>	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차상화 (044-205-63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종집 (044-205-6340)